

자기에 맞는 '분수 그릇' 챙기세요

재곤 스님의 가르침

불자들은 생활 속에 녹아든 인연법을 바로 깨쳐야 합니다. 불들려 놓치고 내던져야 불들리는 그 이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네 일상적인 만남도 인연법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간 알게 모르게 지어온 인연관계를 만남을 통해서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에서 만남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에, 일상을 사는 재가불자들이 선 수행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들어 있습니다. '언젠가 만났던 인연인데?' 하고 그 만남의 인과를 의심하는 것. 이것이 선공부입니다. '이 만남의 인연은 무엇이고, 어디서 왔고?' 하는 것이 화두 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남의 인연을 궁구하는 것이 일상 속 선 공부법이 됩니다. 즉 '이 뒷포' 화두가 일상에 녹아든 것입니다.



다. '분수를 지키라(守分)'는 가르침입니다. 중은 중노릇을, 속인은 속인노릇을 잘 하라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마음공부의 나침반입니다.

어떻게 분수를 지킬 수 있을까? 자기 배를 다스리는 것과 같습니다. 식물을 잘 절제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배속을 음식물로 꽉 채우고 살면 안 됩니다. 조금은 부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식탐을 조절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욕심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분수 그릇'을 갖고 있습니다. 그 그릇 크기만큼 음식을 담아야 하지, 더 담으려면 넘쳐흐르게 됩니다. 터무니없는 욕심 때문입니다.

마음공부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자신을 반성하지 않으면 잘못된 점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잘못은 자신 밖에 없습니다. 불자들은 '하루를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해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 시간

만남의 인연 의심하는 것이 禪공부...마음, 닦지 않으면 탁해져 베풀고 또 베풀어 완전한 무소유 될때 '편한 마음' 얻게 돼

를 놓치게 되면, 공부하기가 어렵습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면, 초년에 힘들더라도 앞을 내다볼 안목을 키워야 합니다. 나쁜만 아니라 모두에게 마한 가지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주인을 어떻게 잘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주인을 잘 만나면 이 몸뚱이는 좋고, 그렇지 않으면 주인이 몸뚱이를 따라다니게 됩니다.

늘 이런 말을 강조합니다. '중이 되서는 중의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한다. 또 주지는 주지 소임을 갖고 살아야 하고 선객은 선객답게 살아야 한다'고.

인간은 누구나 자기가 맡은 일에 충실해야 합니다.

을 갖지 못하면 남에게 끌려 다니게 됩니다. 행여 끌려 다니도 '올게 끌려 다녔는가, 올게 끌려 다니지 못했는가'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통해 반성하고 참회해야 합니다.

아침에 부처님께 예불을 드릴 때, '어제의 삶을 반성하여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30분에서 1시간 정도 기도를 하면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또 자기 일을 가다듬어서 생각을 하게하고, 취침 전에 '내가 계획한 것이 어디까지 성취했느냐'를 생각해 돈이 헛갈들 들어있다면, 그 가방을 아무 곳이나 함부로 둘 수가 없습니다. 가방 속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 나 밖에 모르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가방 속에 치약, 칫솔, 세면도구만 넣어놓고 왔다면 아무데나 놓고, 또 좀 놀다가 보면 있는가보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이처럼 마음은 편한 것입니다.

때문에 불제자들은 절대 가식으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가식으로 살다보면, 언젠가는 자신을 아는 상대방에서 비판을 받게 됩니다. 있는 그대로 자신의 모습을 보여줬을 때, 참다운 아름다움이 나옵니다. 당사자 나름대로 독특한 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바른 불제자의 자세입니다.

정리=김철우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79>

부처님이 들려주는 처세술(1)

젊은이여,
오늘 이 맑은 아침에 그대는 부모님의 유언에 따라 온 세상을 향해 공손하게 기도를 올리고 있구나.

나는 깨달은 자, 부다도. 그대의 진지한 모습 속에는 세상을 현명하고 알차게 살아가고픈 바람이 담겨 있기에 내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성자들이 전해주는 처세술을 들려주고자 하오. 그대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보지 않겠소? 그대는 부자가 되고 싶소?

그렇다면 돈을 모으는 일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지금의 재산이 줄어들지 않도록 다음의 여섯 가지를 명심하길 바라오.

첫째, 술에 빠지면 안 되오. 둘째, 노름이나 도박에 시간을 보내지 말아야 하오. 셋째, 방탕한 짓을 하지 말아야 하오. 넷째, 어디 구경 거리가 없는가에 정신이 팔려 다니면 안 되오. 다섯째, 악한 벗과 사귀지 말아야 하오. 여섯째, 게으르지 말아야 하오.

그대는 사업상 또는 순수한 교제를 이유로 자주 술자리를 갖게 될 것이오. 하지만 술에 빠지면 말아야 하오. 술에 빠지면 재물이 없게 되고, 몸에 병이 생기며, 자주 싸움을 벌이게 되고, 나쁜 이름이 퍼지며, 성품이 사나워지고, 머리가 둔해지오. 만약 그대가 술 마시기를 멈추지 않는다면 그대의 집안 살림은 날로 줄어들 것이오.

노름이나 도박은 절대로 하면 안 되오. 여기에 빠지면 당연히 재산이 날로 줄어들고, 도박에서 이기면 원한을 사게 되고, 현명한 사람들의 비난을 한 몸에 받게 되고, 사람들이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게 되고, 그대를 구원하고 보호하려니 그대는 서둘러 그런 사람과 친해지려 해야 하오.

남을 이롭게 하는 사람은 상대가 게으르지 않도록 지켜주고, 상대가 게을러 재산을 잃지 않도록 보호해주며, 상대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켜주고, 따름하지만 유익한 충고를 남몰래 건네는 사람이오.

정말 좋은 친구를 사귀고 싶거든 이런 사람을 찾아야만 하오. 이런 사람이라면 어떤 말걸을 비추는 불빛처럼 그대의 삶을 환히 비춰줄 것이오. <경이람 선생경>

니 그의 재산은 날마다 줄어들 것이오.
악한 벗과 사귀면 속인수를 배우게 되고, 으스스한 곳만 찾아다니게 되며, 남의 아름다운 사랑을 망치고, 남의 소유물을 탐하게 되고, 재물과 이익만 따라다니게 되며, 남의 허물 들춰내기를 좋아하게 되오.

게으름의 해악은 다음과 같소. 지금 형편이 넉넉하다고 해서 장래를 위해 굳이 일하려 들지 않는 것이오. 지금 가난하고 궁핍한데도 부지런히 일하려 들지 않는 것이오. 추우면 춥다고 일하려 들지 않는 것이오. 더우면 덥다고 일하려 들지 않는 것이오. 때가 이르러 이르다고 일하려 들지 않고, 때가 늦었으면 늦었다고 일하려 들지 않는 것이오. 게으름피기를 멈추지 않는다면 그의 집안 살림은 날로 줄어들 것이오.

그대는 어떤 친구를 사귀고 있소?
혹시 누군가 비굴한 모습으로 친하게 지내려 다가온다면 경계해야 하오. 왜냐하면 그런 이들은 자기가 준 것을 반드시 빼앗을 것이오. 적게 주고 많은 것을 그대에게 바랄 것이오. 그대의 세력이 두려워 억지로 친한 척 하는 것이오.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 친한 채

당신은 어떤 친구를 사귀고 싶소? 나보다 남을 이롭게 하는 사람은 그대의 삶을 환히 비춰줄 것이오

하기 때문이오.
그리고 술을 마실 때에 사귀는 사람, 도박할 때에 사귀는 사람, 음란한 짓을 할 때 사귀는 사람, 유흥가에서 사귀는 사람이 친하게 지내려다가 오거든 경계해야 하오. 그런 자는 그대에게 악한 벗이 되어 반드시 그대에게 순해를 입힐 것이기 때문이오.

그대는 어떤 친구를 사귀고 싶소? 잘못을 그치게 하는 사람, 사랑하고 가엾이 여기는 사람, 남을 이롭게 하는 사람, 고락을 함께하는 사람, 남을 사귀기 바라오. 이런 사람은 그대에게 매우 유익할 것이오. 그대를 구원하고 보호하려니 그대는 서둘러 그런 사람과 친해지려 해야 하오.

남을 이롭게 하는 사람은 상대가 게으르지 않도록 지켜주고, 상대가 게을러 재산을 잃지 않도록 보호해주며, 상대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켜주고, 따름하지만 유익한 충고를 남몰래 건네는 사람이오.

정말 좋은 친구를 사귀고 싶거든 이런 사람을 찾아야만 하오. 이런 사람이라면 어떤 말걸을 비추는 불빛처럼 그대의 삶을 환히 비춰줄 것이오. <경이람 선생경>

■ 이미명(동국역경원 역경원원)



'불들려 놓치고 내던져야 불들린다'는 재곤 스님, 재가불자들이 일상속에서 이런 영건의 이치를 깨치면, 자유인이 된다고 강조하신다.

www.webtbn.com
www.금강.net

할인에 서비스까지!! 지금이 기회 (051)505-2434
[TBM 병술년 추석맞이 할인행사]

사찰신도관리 이제 손으로 작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전국 2000여 사찰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금강장사를 사용해 보십시오.
가족중 한분의 이름만 알아도 빠른 검색이 가능하며 연말기부금증명서 출력은 물론, 봉투, 등포, 인등포등 각종 양식이 인쇄가 되며 사찰에서 사용하는 각종회계장부를 적용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제공하는 기능은 축원관리, 인등관리, 불사관리, 행사관리, 재무관리, 생일관리, 49제기타 설법자료보관, 일정관리, 명함관리, 신수보기(토정비결), 우편물관리, 자체신도증발급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이용하세요.

놓치지 마세요
중무행정 최고봉 **금강장사 할인 최고 30%!!**

- 행사기간 : 2006. 8. 15 ~ 2006. 9. 30
※ 이번 행사는 TBM 3주년 행사입니다.
행사기획처인 TBM에서만 적용되는 가격임을 알려드립니다.
※ 금강장사 사용자에 한해 행사 기간중 사주대전 풀버전을 10% 할인 합니다.
- 행사내용 (서비스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1. 30% 할인 (서비스없음)
※ 우편 판매 가능함 : 요청에 의해 1회 방문 가능
2. 10% 할인시 제공서비스
① 축원자료일력 ② 년관리 계약부(1년추가) ③ 용지 3종세트
- 정상 구입시 제공서비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1. KM1000 구입시
① 사주대전패키지 제공(주역 등) ② 축원자료일력
③ 년관리 계약부(1년추가) ④ 용지 3종세트
2. KM9000 구입시
① 사주대전패키지 제공(명리 등) ② 축원자료일력
③ 년관리 계약부(1년추가) ④ 용지 3종세트

TBM 금강장사 (051)505-2434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3동 효승 오피스텔 303호

동신대학교 차(茶)학과 안내

1. 학과소개
최근 '웰빙'이라는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갈망, 건강지향, 문화지향, 편의성추구의 소비자 트렌드에서 볼 수 있듯이 차 문화와 산업이 부가가치가 높고 유망한 산업분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친환경 유기농 농법에 의한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품종 개발, 선진 가공기술, 글로벌 마케팅과 체계적 유통에 의한 명품 브랜드의 개발, 차 효능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여 2007학년도부터 차(茶)학과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산학협력에 의한 실무 중심 교육과정과 중국 절강대학교의 학점교류에 의한 복수학위제(추진중), 국제 학술 세미나, 국제 차 문화 체험 행사를 통한 국제적 마인드를 갖출 수 있게 됩니다.
2. 교육목적
본 학과는 차(茶)와 관련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이론과 실용실습을 통하여, 차의 품종을 개발하고 차 산업화를 선도하며 차(茶) 문화와 관련된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 인력의 양성을 지향한다.
3. 교육목표
- 차(茶)의 제배 및 차 문화에 대한 기본지식 습득 - 국제경쟁력을 갖춘 차(茶)전문 인재 및 지도자 육성
- 차(茶)와 관련된 과학적이고 학술적인 체계 확립 - 차(茶)와 관련된 과학적이고 학술적인 체계 확립
- 육종개발을 통한 명차 생산 및 차(茶) 품종의 자원화 - 제다기술 개발 및 명차(茶) 생산과 품질관리사 배양
4. 교과과정
◆ 1,2학년 -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및 정보전산 교육, 차의 역사, 다도, 철학, 전통예절, 행다법 등 기본 교양교육
- 차문화 고전연구, 차 제배 및 제다 등에 관한 기초이론 교육
◆ 3,4학년 - 육종 및 생산, 유통, 마케팅, 차 문화기획 등 차에 관련한 전공교육
- 품질평가학, 제다학, 품종개발학, 다예학, 차나무재배학, 차문화사
- 중국 절강대학교 다학계(茶學系)의 교류 협력(추진중)
5. 교육환경
◆ 교내 : 삼매원(전통예절교육관), 산업융합속기이용생물연구센터(RRC), 생물자원산업화지원센터(BT)의 품종 개발실, 종자 은행, 의과대학, 한약재산업학과
◆ 교외(협력시설) : 영농조합지리산명차원, 초의선원, 초의선사기념관(무안군 삼향면 소재), 보성군차농부조합
6. 자격증
◆ 다도사범증 기사 1, 2급(추진중), 제다사, 품종개발사, 품질평가사, 다예사
7. 졸업후 진로
◆ 기업체 및 학교 다도예절 전문강사 (유통업체, 백화점, 호텔 등의 매니저)
◆ 차 문화 행사 연출 기획자, 차 요리 전문가, 차 미용 전문가, 차 미용 전문가, 차 미용 전문가
◆ 국내외 관련기관 및 식품가공 연구소, 식약청 등의 공무원 취업
◆ 국제 차 전문가, tea 마케터, tea 매니저, 차 브랜드개발, 차 비즈니스리더, 차 무역업
◆ Tea shop 운영, tea consulting, tea house ◆ 차 산업 전반에 대한 창업

◆ 입학안내 : 동신대학교 입학관리처 ☎ 061-330-3333 www.dsu.ac.kr